

[2022-35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i>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i>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22. 7.27(수)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전시	
연락처	323-936-3014/tammy@kccla.org	담당자	Tammy Cho	

LA한국문화원 Art Project

시선이 머무는 곳에 (Four Gazes)

“4인의 작가, 평범한 일상속에서 문득 머무는 시선...”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August 5 - August 26, 2022

시선이 머무는 곳에

FOUR Gazes





조운경 Yunkyoung Cho
 유니스 최 Eunice Choi
 김케셀 태연 Teayoun Kimkassor
 소진애 Jinae Soh
 Curated by Sunook Park



- ▶ 전시명: 시선이 머무는 곳에 [Four Gazes]
- ▶ 전시기간: 2022.8.5(금)-8.26(금)
- ▶ 오픈닝: 2022.8.5(금) 18:00-21:00
- ▶ 장 소: LA한국문화원 아트갤러리/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 ▶ 선정작가: 조운경, 최 유니스, 김케셀 태연, 소진애 (last name abc 순)
- ▶ 게스트 큐레이터: 박선욱(Cal State Long Beach 미대 교수/독립 큐레이터)
- ▶ 전시문의: LA한국문화원 323-936-3014 전시담당 Tammy Cho
- ▶ 전시장 개장: 월-금 10:00 -17:00 (8.15(월) 광복절로 휴무)
- ▶ 불임: 전시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LA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은 8.5(금) 18:00 "시선이 머무는 곳에" (Four Gazes) 라는 주제로 4인 한인 작가전을 LA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개막한다.

LA Art Project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문득 머무는 시선을 포착하여 때로는 담담하게, 때로는 유장하게 살아온 기억의 저편을 불러낸다. 마치 수채화 속을 걷는 듯 기획된 전시공간은 아무리 아프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삶의 일상성을 보여 준다.



조윤경, *There Are No Grade of Vanity, 2021*



유니스 최, *Tea Set, 2020*

작가 조윤경(Yunkyong Cho)의 '책거리'에는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이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표현은 경쾌하다. 한국화의 독특한 장르를 친근한 일상으로 불러들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궁중화에서 출발한 '책거리'를 텍스타일 입체 부조방식으로 표현된 작품은 시대적 상황과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물건들을 천천히 보여준다. 그리고 작가의 세세한 작업들은 관객들에게 시간이 남긴 기록과 다른 이의 이야기를 관찰하고 기억하게 만든다.

작가 유니스 최(Eunice Choi)는 평범한 도자기 그릇을 사람에 비유한다. 그릇을 손으로 빚고 굽는 과정은 마치 사람이 성장하는 단계와 비슷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작가는 찻잔, 물잔, 주전자처럼 평범한 그릇들을 소재로 삼아 유화(Oil painting)에 자연광과 여백의 아름다움을 담아낸다.

작가 김케셀 태연(Teayoun Kim-Kassor)은 한국에서 태어나 일본과 미국의 문화를 동시에 향유해 온 작가다. 작가는 이를 행운이라고 말한다.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게 만들었고, 끝없는 탐구행위가 예술 속 열정으로 발현되었음을 작품을 통해 고백한다. 섬유를 주재료로 쓴 그녀의 작품에는 작가의 유려한 예술세계와 고유한 경험들이 녹아 있다.

작가 소진애(Jinae Soh)는 매일 어두운 새벽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산을 오른다. 그녀의 색은 어릴 때 눈 앞에 펼쳐졌던 들녘과 하늘, 그리고 늘 바라보던 바다의 색들이다. 이를 위해 작가는 숯가루를 재료로 쓴다. 숯가루는 본인이 간호사로 일하며 오랜 세월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던 것이다. 나무가 찬란했던 젊은 시절을 뒤로 하고, 그 수명을 다하고 남긴 숯가루에 투영된 작가의 심미안이 신비롭기까지 하다.



김케셀 태연, *Voyages 1*, 2019



소진애, *결 1*, 2021

전시를 기획한 박선욱 Cal State Long Beach 대학 교수는 "한여름에 신선한 아침을 맞는 기분으로 전시장에 방문하기를 바란다."면서, 더불어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 담겨있는 치유와 회복 탄력성을 새롭게 깨닫고 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LA한국문화원의 정상원 문화원장은 "문화원 대표 전시프로그램인 LA Art Project는 미주 전역에 있는 역량 있는 한인 작가들을 발굴하고, 다양하고 우수한 작품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네 명의 한인작가들의 개성 있는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선이 머무는 곳에" (Four Gazes) 전시는 LA한국문화원 2층 아트 갤러리에서 8.26(금)까지 계속된다.

더 자세한 문의는 LA한국문화원 전시 담당 태미 조 323-936-3014로 연락하면 된다. /끝/